금주의 법구–〈별역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이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이 없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94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4월 28일) 2020년 5월 20일 수요일

‘나눔의집’ 감사결과 ‘횡령 · 학대’ 없었다

내부 문제 제기… 광주시청 · 법인 감사 진행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1992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쉼터로 개원해 30년 가까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매진한 나눔의집이 최근 운영비리 논란에 휩싸였다. 나눔의집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이 “후원금이 할머니를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며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광주시청 시설 감사와 법인 내부감사 결과, 직원들이 주장한 후원금 횡령과 할머니 학대 등에 대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운영 부실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 개선이 요구된다.

광주시청은 4월28일 나눔의집에 감사 결과가 기재된 ‘사전처분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지서에 따르면 나눔의집 시설에 대한 감사 결과, 후원금 횡령 등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다만 운영상 미비점 5건에 대해 경고 및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광주시청 감사는 직원들의 문제제기에 따라 나눔의집 법인이 요청한 것이다. 나눔의집 법인 상임이사 성우 스님은 올 2월경 일부 직원들이 나눔의집 횡령과 운영비리 등을 문제삼아 법인에 발송한 ‘제안서’를 확인한 후 내부감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직원들의 거부로 일부만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광주시청에 제안서와 공문을 발송해 “직원들의 주장대로 나눔의집에 비리와 후원금 횡령이 발생했는지 직접 감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시청 감사결과 나눔의집에 대한 지적사항은 입소자 및 종사자 건강관리 소홀(건강검진 등 미비), 운영위원회 운영 소홀(회의 불참시 위임), 운영규정 미비(규정 내용 누락), 보조금에서 상하수도비 42만원과 종사자 급식비를 지출한 문제 등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나눔의집 측은 “감사 결과를 모두 수용하고 개선 · 보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청 감사에 앞서 올초 진행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 내부감사에서도 직원들이 제기한 횡령 등의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11월 법인 감사로 선임돼 감사를 실시했던 김민성 회계사는 “당시 감사의 일환으로 직원들이 제기한 의혹을 검토한 바 있다”며 “후원금 논란은 재정적 문제라기보다 사회복지법과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행정 미숙 등 운영상 미흡에 가깝다. 후원금 등 재정이 외부로 흘러갔거나 횡령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계사는 “후원금으로 생활관과 역사관을 증축 · 건립했다”는 직원들의 지적과 관련, “직접비와 간접비, 지정 · 비지정 후원금에 대한 활용 및 절차가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계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후원금 횡령으로 볼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나눔의집 안신권 소장 역시 “나눔의집은 사회복지법상 노인양로시설이지만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이 거주하는 곳이기에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생활관 증축, 위안부 문제 인식확산을 위한 역사관 건립 등이 할머니들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며 “후원금 횡령이나 유용은 없다”고 밝혔다. 안 소장에 따르면 현재 65억원 가량의 후원금이 통장에 적립돼 있다.

직원들이 제기한 의혹 중에는 나눔의집 법인 전 상임이사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에 대한 것도 포함됐다. 이들은 “원행 스님이 나눔의집 법인 상임이사 소임을 맡으면서 비상근임에도 보수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계사 등에 따르면 원행 스님은 2018년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당선되기 전까지 18년간 나눔의집 법인 상임이사 소임을 맡았으며, 이 기간 동안 13년은 무보수로, 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는 역사관장 소임을 겸직하면서 5년간 매월 100여만원을 받았다. 이 역시 후원금이 아닌 역사관 운영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감사서도 “횡령 아냐”
운영 · 행정 미비점은 지적
경기도청, 5월중 법인감사
감사결과 개선 의지 피력

그럼에도 이번 논란으로 나눔의집은 운영 부실에 대한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시설감사 결과는 물론, 앞서 진행된 사전감사에서도 시설과 법인간 후원금, 공간, 인력 분리가 미비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 나눔의집 법인에 대해 5월13~15일 경기도청의 특별지도점검이 진행 중이다.

안신권 소장은 “감사 지적사항을 토대로 현재 인력을 새로 뽑아 홈페이지 분리, 후원금 계좌 분리, 시설 · 법인간 운영 · 공간 분리 등 법적체계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라며 “5월22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시설 감사 결과를 포함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결과를 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눔의집 상임이사 성우 스님은 “사실 여부를 떠나 논란이 발생한데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경기도청 감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은 물론,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수국사는 5월 8일~10일 ‘상월묵언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상월선원 결사를 현대인에 맞게 변화시켜 일반인도 쉽게 동참할 수 있게 했다. 사진은 주지 호산 스님과 참가자들이 삼성각 처마 아래서 좌선하는 모습. 사진제공=수국사

상월선원 결사, 신행 · 문화로 이어간다

혹한기 추위 속 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한 아홉 스님이 천막 무문관에 들어 용맹정진했던 상월선원 결사정신이 회향 3개월 후 신행 · 문화로 이어진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다큐 영화다. 상월선원 천막결사 기간 안팎의 정진을 담아낸 다큐영화 ‘아홉 스님’으로, 롯데시네마에서 5월 27일 개봉한다.

‘아홉 스님’은 상월선원 결사대중으로 참여한 아홉 스님들의 극한 수행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담아냈다. 한겨울 기간 동안 정진법당 내에서 온기 한 점 느낄 수 없는 대중들이 90일간 무문관 수행으로 정진하며 느낀 바와 에피소드 등을 72분간 차분히 전한다.

이번 다큐영화는 ‘바보야’ ‘법정 스님의 의자’ ‘울지마 톤즈’ 등 김수환 추기경과 법정 스님 등 종교계 지도자들의 일대기를 담은 영상물을 제작한 KBS미디어가 제작했다.

제작을 기획한 김형진 KBS미디어 디지털제작부 PD는 “그동안 종교 다큐영화는 돌아가신 분들을 되새기는 자료의 의미와 남은 기억하는 추모형식이어서 상대적으로 생생한 느낌이 없었다”며 “이번 다큐영화는 살아있는 아홉 스님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영화 내부 구성도 결사에 동참한 도림 스님이 직접 나레이터가 돼 현실감이 피부로 와 닿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영화 촬영과 편집을 담당한 윤성준 감독은 “사람의 기본은 의식주인데 이를 제한하고 포기하다시피 치열하게 수행하는 모습은 초심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한다. 불교에 문외한인 저를 비롯한 일반인들도 감명을 받을 만하다”며 “한번쯤은 초심,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선사찰에서는 상월선원 결사정신을 테마로 한 템플스테이도 이어졌다. 서울 수국사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상월묵언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다큐 · 템플스테이 ‘눈길’
5월 27일 ‘아홉스님’ 개봉
수국사선 상월묵언 체험도
연내 회고록 발간 준비 중

상월선원 결사가 철저한 수행이었다면 수국사 상월묵언 템플스테이는 결사 정신을 토대로 수행과 힐링을 접목시켜, 일반 불자들도 부담 없이 동참해 정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상월선원 결사를 회향한 9인의 스님 가운데 한명 이었던 주지 호산 스님이 결사 정신을 대중과 함께하기 위해 고안했다.

상월묵언 템플스테이 첫 참가자들은 윤성이 동국대 총장과 조성환 학교법인 기획관리부장, 김성우 사업부장 등 종립학교를 이끄는 불자들. 여기에 호산 스님이 입방해 직접 프로그램을 지도했으며, 망경산사 하원 스님과 수국사 인공 스님 등도 함께했다.

프로그램은 묵언과 휴대폰 반납, 사찰 밖 외출 금지, 수국사에서 제공하는 음식만을 섭취한다는 4가지 청규에 대한 서약식을 기점으로 2박3일간 이어졌다. 이 같은 청규는 상월선원의 씻거나 이발하지 않고 하루 한끼 공양, 묵언하는 가운데 하루 14시간 정진하는 등의 청규를 템플스테이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호산 스님은 “템플스테이로 보기엔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상월선원 결사정진의 핵심이 곧 수행정진에 있고, 이 같은 정진이 스스로를 비우고 성장시키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며 “휴대폰 없이 묵언하며 나 자신에게 몰두했던 모든 시간들이 곧 공부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국사는 6월부터 매주 토요일 ‘묵언명상 day’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5월 15~17일 스키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도 2차 상월묵언 템플스테이가 진행됐다.

상월선원 입재 1주기에는 조계종 출판사에서 상월선원 정진대중의 결사 회고를 담은 회고록도 발간된다. 결사대중 스님 9명의 인터뷰와 함께 결사에 동참한 이들의 사연을 잔잔한 스토리텔링으로 담는다. 또 상월선원 결사정신의 중요성과 남은 과제 등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책 발간을 이끌고 있는 상월선원 대변인 일감 스님은 “영화와 템플스테이, 서적 등 다양한 문화를 통해 상월선원이 남긴 가치를 일반인들과 불자들이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 송지희 기자

